



한인회보

Washington State Korean News

The Wash. State Korean News
is Published Monthly by Seattle
Wash. State Korean Association
P.O.Box 24992 Seattle, WA 98124
James H. Kim Publisher
Soo Ho Lee Editor

VOL 5 NO. 1

SEATTLE 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January 1978



새해에 복 많이 받으세요

교포 여러분 가정에 행운이 넘치시기 바라며
하시는 모든 일이 성공 되시기를 빕니다.

1978년 1월

씨아틀·와싱턴주 한인회 임원·이사 일동.

새 출발을 하면서

한인 회장 김형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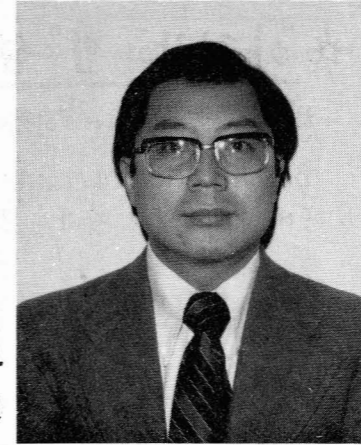
새해에 여러 교포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합니다. 씨아틀·와싱턴주 한인회는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 아래 '77년도에도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교포들을 위하여 일 할 수 있는 봉사 센터를 마련 할 수 있었던 것은 큰 수확이라고 생각 됩니다. 이미 많은 교포들의 직장을 알선 하였으며, 교포들의 권익 옹호와, 불편을 제거하는 일에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1년간 교포들을 위하여 노력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어려움도 있었으나 그 때 마다 뒤에서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교포들이 있었기에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새 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78년도에는 평량하고 협동하는 한인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더욱 노력 할 것입니다. 운전 면허 시험을 한글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일과,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교포 학생들을 지도 하는 "여름 학교" 개설 문제 등을 비롯하여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 추진하는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협조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는대로 한인회는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수입이 전혀 없습니다. 봉사센터 운영이나 사무실 유지비, 회보 발간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여러분께서 납부하시는 한인 회비와 기부금으로 운영 하고 있습니다. 한인회 사업 계획이 아무리 좋고 할 일이 많다고 하여도 여러분께서 회비나 기부금을 보내 주시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회비도 약간 증액 되어야 할 것이며 뜻 있는 분들은 기부금도 보내 주셔야 운영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한국인을 상대로 영업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어려운 한인회 재정 형편을 이해 하셔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을 위한 호소가 아니고, 우리 한인 사회와 미래의 우리 후손들을 위한 일이므로 적극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 동안 도와 주신 여러 교포들께는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교포 사회의 단결과 발전 그리고 친목을 위해서는 뒤에서 불평 하는 것 보다는 먼저 이해 하고 협조 하는 태도가 바람직 할 것입니다. 협조 없이 비평만 하는것은 교포 사회를 분열 시키는 결과 밖에 없는 줄 압니다. 이것을 이해 하고, 항상 이웃과 남을 도와 주려고 하는 정신을 가질 때 우리 사회는 평량하고 행복 해 질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민 와서 살고 있는 우리 한인 교포들은 이해심, 인내심, 협동심을 가지고 서로서로 격려 하며 살아야만 다 같이 발전 할 수 있을 줄 압니다. 한인 교포 사회에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좋은 의견이 있을 때는 누구나 서슴치 마시고 한인회로 연락 하시거나 서신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한 여러분의 의견은 전체 한인 사회에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입니다. '78년도에는 여러분 각자가 계획 하시는 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지기를 바라며 여러분 가정에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78년 1월

서로 서로 도와주며 발전하는 한인 사회

새해 인사

한인회 이사장
오준걸



못다한 아쉬움을 안은채 다사 다난 했던 묵은 해를 보내고 희망의 새해 무오년을 맞이 하는 씨아틀·와싱턴주 한인 여러분들께 문안 드립니다. 지난 해를 도리켜 볼 때 새 생활을 개척해 나가는 우리들의 끝없는 협조와 격려로서 한인 사회를 진취적으로 이끄는 데 전환점의 해가 된것 같습니다. 역사가 짧은 이곳 한인 사회이기도 하지만, 우리 서로가 협조하고 단합을 할 때에 우리가 원하는 화목한 분위기의 한인 사회, 그리고 복지 향상의 주축이 되는 한인 사회, 나아가서 여러 민족들과 같이 어깨를 겨우고 나아 갈 수 있는 한인 사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지난 1977년은 미국에서 사는 우리들에게 어느 때 보다는 정치적으로 움추림을 당했던 해 인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랑 할 수 있는 것은 모국이 경제적으로 개발 도상국으로 부터 준공업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었다는 획기적인 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도의 경제 발전과 우리의 찬란한 문화의 융합이 우리로 하여금 일층더 긍지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타국에서 새 생활을 개척하는 우리들에게는 많은 고난과 시련이 따릅니다. 이 고난과 시련은 우리 민족에게만 따르는 것만이 아니고, 이민 온 이곳 타 민족에게도 따랐습니다. 고난과 시련을 극복 하는데는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나 조그만 힘을 모을 때 큰 힘이 되며, 이 어려운 일들이 쉽고 짧은 시간에 타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결코 실패해서는 안됩니다. 부정적인 태도나 혹은 불만의 표시, 비난만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좀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격려가 우리 서로간에 있어야 겠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말씀이 생각 납니다. 정적을 비난하는 동료들에게 "미운 아버지 발라 가면서 예뻐 하자" 고 하신 이 평범한 말씀 속에 얼마나 깊은 뜻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비난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협조, 격려, 사랑으로 남의 잘못을 감사 주자는 이야기인것 같습니다. 이리므로 큰 목적 달성을 위해서 보다 더 진취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와싱턴주 특히 씨아틀은 여러 지상으로 살만 한 곳 (LIUABLE CITY OR LIUABLE PLACE)으로 근래에 알려져 많은 교포들의 관심이 되어 있습니다. 새 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재미 교포 사회에 모범이 될 수 있는 한인 사회를 이룩해야 되겠다는 서로의 각오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희망의 새 해 교포 여러분 가정 위에 보다 많은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78년 1월

안 내

★ 저 소득층을 위한 탁아소

- (1) 자격: 저 소득자로서 씨아틀에 거주하거나 국제 지역(중국 타운)에 직장을 가진자거나 흥미가 있는 사람.
- (2) 장소: Baptist Church at 10th and So. King.
- (3) 신청 마감: 3월 말 (4월에 open)
- (4) 연령: 1살 ~ 5살
- (5) 시간: 월 ~ 금 (6:30 AM. ~ 5:30 P.M.)
- (6) 접수 처: 한인회 사무실 (624-7604)
- (7) 식사: 아침, 점심과 스낵.
- (8) 학습: 한국어, 영어를 접한 프로그램.
- (9) 저 소득자의 규정 (아래 수입 이하인 자)

가족 수	월 수입	연 수입
2	\$ 872	\$10,473
3	\$1,078	\$12,938
4	\$1,283	\$15,402
5	\$1,488	\$17,866
6	\$1,694	\$20,330

새 출발을 하면서

한인 회장 김형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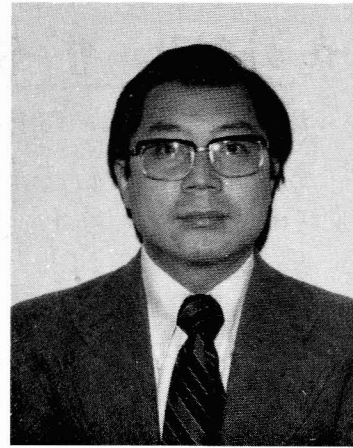
새해에 여러 교포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합니다.
 씨아틀·와싱턴주 한인회는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 아래 '77년도에도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교포들을 위하여 일 할 수 있는 봉사 센터를 마련 할 수 있었던 것은 큰 수확이라고 생각 됩니다. 이미 많은 교포들의 직장을 알선 하였으며, 교포들의 권익 옹호와, 불편을 제거하는 일에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1년간 교포들을 위하여 노력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어려움도 있었으나 그 때 마다 뒤에서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교포들이 있었기에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새 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78년도에는 평량하고 협동하는 한인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더욱 노력 할 것입니다. 운전 면허 시험을 한글로 볼수 있도록 하는 일과,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교포 학생들을 지도 하는 "여름 학교" 개설 문제 등을 비롯하여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 추진하는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는대로 한인회는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수입이 전혀 없습니다. 봉사센터 운영이나 사무실 유지비, 회보 발간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여러분께서 납부하시는 한인 회비와 기부금으로 운영 하고 있습니다. 한인회 사업 계획이 아무리 좋고 할 일이 많다고 하여도 여러분께서 회비나 기부금을 보내 주시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회비도 약간 증액 되어야 할 것이며 뜻 있는 분들은 기부금도 보내 주셔야 운영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한국인을 상대로 영업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어려운 한인회 재정 형편을 이해 하셔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을 위한 호소가 아니고, 우리 한인 사회와 미래의 우리 후손들을 위한 일이므로 적극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 동안 도와 주신 여러 교포들께는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교포 사회의 단결과 발전 그리고 친목을 위해서는 뒤에서 불평 하는 것 보다는 먼저 이해 하고 협조 하는 태도가 바람직 할 것입니다. 협조 없이 비평만 하는것은 교포 사회를 분열 시키는 결과 밖에 없는 줄 압니다. 이것을 이해 하고, 항상 이웃과 남을 도와 주려고 하는 정신을 가질 때 우리 사회는 평량하고 행복 해 질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민 와서 살고 있는 우리 한인 교포들은 이해심, 인내심, 협동심을 가지고 서로서로 격려 하며 살아야만 다 같이 발전 할 수 있을 줄 압니다. 한인 교포 사회에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좋은 의견이 있을 때는 누구나 서슴치 마시고 한인회로 연락 하시거나 서신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한 여러분의 의견은 전체 한인 사회에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입니다. '78년도에는 여러분 각자가 계획 하시는 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지기를 바라며 여러분 가정에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78년 1월.

서로 서로 도와 주며 발전하는 한인 사회

새해 인사

한인회 이사장
오준걸



못다한 아쉬움을 안은채 다시 다산 했던 묵은 해를 보내고 희망의 새해 무모년을 맞이 하는 씨아틀·와싱턴주 한인 여러분들께 문안 드립니다. 지난 해를 도리켜 볼 때 새 생활을 개척해 나가는 우리들의 끝없는 협조와 격려로서 한인 사회를 진취적으로 이끄는데 전환점의 해가 된것 같습니다. 역사가 짧은 이곳 한인 사회이기도 하지만, 우리 서로가 협조하고 단합을 할 때에 우리가 원하는 화목한 분위기의 한인 사회, 그리고 복지 향상의 주축이 되는 한인 사회, 나아가서 여러 민족들과 같이 어깨를 겨루고 나아 갈 수 있는 한인 사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지난 1977년은 미국에서 사는 우리들에게 어느 때 보다는 정치적으로 움추림을 당했던 해 인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랑 할 수 있는 것은 모국이 경제적으로 개발 도상국으로 부터 준공공적으로 발디임을 할 수 있었다는 획기적인 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교도의 경제 발전과 우리의 찬란한 문화의 융합이 우리로 하여금 일층더 긍지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타국에서 새 생활을 개척하는 우리들에게는 많은 고난과 시련이 따릅니다. 이 고난과 시련은 우리 민족에게만 따르는 것만이 아니고, 이민 온 이곳 타 민족에게도 따랐습니다. 고난과 시련을 극복 하는데는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나 조그만한 힘을 모을 때 큰 힘이 되며, 이 어려운 일들이 쉽고 짧은 시간에 타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결코 실망해서는 안됩니다. 부정적인 태도나 혹은 불만의 표시, 비난만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좀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격려가 우리 서로간에 있어야 겠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말씀이 생각 납니다. 정적을 비난하는 동료들에게 "미운 아내 분 발라 가면서 예뻐 하자" 고 하신 이 평범한 말씀 속에 얼마나 깊은 뜻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비난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협조, 격려, 사랑으로 남의 잘못을 감사 주자는 이야기인것 같습니다. 이러므로 큰 목적 달성을 위해서 보다 더 진취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와싱턴주 특히 씨아틀은 여러 지상으로 살만 한 곳 (LIUABLE CITY OR LIUABLE PLACE)으로 근래에 알려져 많은 교포들의 관심사가 되어 있습니다. 새 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재미 교포 사회에 모범이 될 수 있는 한인 사회를 이룩해야 되겠다는 서로의 각모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희망의 새 해 교포 여러분 가정 위에 보다 많은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78년 1월

안내

★ 저 소득층을 위한 탁아소

- (1) 자격: 저 소득자로서 씨아틀에 거주하거나 국제 지역(중국 타운)에 직장을 가진자거나 흥미가 있는 사람.
- (2) 장소: Baptist Church at 10th and So. King.
- (3) 신청 마감: 3월 말 (4월에 open)
- (4) 연령: 1살 ~ 5살
- (5) 시간: 월 ~ 금 (6:30 AM. ~ 5:30 P.M.)
- (6) 접수 처: 한인회 사무실 (624-7604)
- (7) 식사: 아침, 점심과 스낵.
- (8) 학습: 한국어, 영어를 겸한 프로그램.
- (9) 저 소득자의 규정 (아래 수입 이하인 자)

가족 수	월 수입	연 수입
2	\$ 872	\$10,473
3	\$1,078	\$12,938
4	\$1,283	\$15,402
5	\$1,488	\$17,866
6	\$1,694	\$20,330

*** 미당 서 정주선생 씨아들 방문**

한국 시단의 거성 서 정주 선생께서 지난 12월 9일 씨아들을 방문 2일간 유하했다. 경향신문사 외외 "미당 세계 방랑기"를 집필 하기 위하여 10개월 여 정으로 세계 일주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 미당 선생을 숙소인 올림픽 호텔로 찾아 뵈었을 때, 선생께서는 여러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특히 한인들이 한국인의 정으로 뭉쳐서 단합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 하셨다.

*** 김 상태 학생회장 한인회 방문**

12월 29일 오후, 와싱턴 주 학생회장 김 상태씨와 부회장 김 명희씨는 김 형진 한인회장을 방문, 학생회 활동과 현황을 이야기 하면서 한인회의 협조를 요청 하였다. 김 형진 한인회장은 앞으로 학생회 활동에 적극 협조 할 것을 약속 하였으며 특히 가족을 떠나서 혼자 생활하고 있는 외로운 학생들을 위로하고 격려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김 형진 회장은 학생회 장학 기금을 위한 행사도 추진 하겠다고 하였으며, 지난 총회 때 말이 있었던 세미나 관계에 대하여도 그 경위를 자세히 설명 하면서 학생들의 오해가 없기 바란다고 하였다.

*** 타코마 한인회장에 이 명규씨**

12월 3일 타코마 커뮤니티 하우스에서 있었던 타코마 한인회 총회에는 약 70명의 교포들이 참석 하였다고 한다. 이날 제2대 타코마 한인회장에 이 명규씨가 무투표 당선 되었다고 하며 부회장은 옥 민권, 김 일영씨가 추대 되었고, 이사는 이 순우씨가 유일하게 등록 하였다고 한다.

*** 한인회 이사장에 오 준걸씨**

지난 12월 21일에 있었던 씨아들-와싱턴주 한인회 이사회에서는 오 준걸씨를 이사장에 선출 하였다.

*** "아리랑의 밤" 성료**

한인회 연례 행사인 "아리랑의 밤"은 12월 23일 Butcher Restaurant에서 열렸는데 이날은 작년 도에 비해 약간 숫자가 적은 260명 정도의 한인들이 모였었다. 예정 시간 보다 늦게 시작된 이날 밤 파티에서는 한인 사회를 위하여 그 동안 많은 일을 해 온 신 호범 전 이사장과 부회장 암스트롱 여사, 이 종익씨에게 감사패가 전달 되었다. 그리고 이 인수씨의 독창, 김 정실양의 고전 무용, 래권도 시범 등이 있었고. 노래 자랑, 경품 추첨에 이어 아리랑 밴드가 연주 하는 가운데 댄스 파티가 1시 넘도록 계속 되었다. 노래 자랑에는 10여명의 희망자들이 출연 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씨아들 지역 한인 업체를 경영하는 업주들은 이날을 위하여 두집 한 경품을 기증 하여 주었다. 또한 한인회를 위한 기부금 모금에서는 무려 1,000불 이상의 돈이 각 출 되어 한인 사회의 단결 협력 하는 모습을 보여 주기도 하였다.

*** 기능사 협회 소식**

12월 17일 화이트 센터에서 열린 기능사 협회 (전 용접사 협회) 총회에는 약 70여명의 회원들이 모인 가운데 연례 정기 총회를 가졌다고 하며 임원 선거에서는 박 제민씨가 만장일치 박수로 회장에 선출 되었다고 한다. 이날 회장에는 당 병석, 정 철식, 박 제민씨가 출마 하였으나, 당, 정, 양 후보는 신상 발언을 통해 입후보를 사퇴하는 동시에 박 제민씨를 중심으로 일치 단결 하자고 호소 함으로써 만장의 박수를 받았다고 한다. 총회가 끝난 후에는 7시 까지 여흥 순서를 가지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신임 회장 박 제민씨는 한인들의 권익 옹호를 위하여 노력 할 것이며, 회원들을 위하여 힘껏 일 하겠다는 포부를 피력 하였다고 한다. 이와 같이 기능사 협회가 전에 볼 수 없었던 단결과 협동 정신으로 새 출발 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 한인 사회에 좋은 본이 되었다고 생각 된다.

*** 김 형진 회장, 남 흥우 영사, 주지사를 방문**

김 형진 한인 회장과 남 흥우 영사는 1월 9일 와싱턴 주지사 Dixy Lee Ray 씨를 집무실로 방문, 약 20분 정도 담화를 나누었다고 한다. 김 회장은 한인회를 도와 준데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였으며, 남 영사는 총 영사관 개설에 대한 인사를 하였다고 한다. 이 자리에는 이 만득 무역 관장과 김 연조 외환 은행 사무소장도 동석, 인사를 나누었다고 한다.

*** 김 종구씨 세무사 자격 획득**

지난 9월, 교포 김 종구씨는 미 연방 재무성 산하 조세청에서 실시한 1977년도 세무사 시험에 합격 하여 세무사 자격을 획득 하였다고 한다. 김씨는 현재 NEW ENGLAND FISH CO. TAX ACCOUNTANT로 일하고 있다. 자택 전화: 367-0655

*** 학생회 주최 연말 잔치 성료**

12월 28일 밤, Blackburn Memorial Hall에서는 와싱턴 주 학생회 주최 연말 잔치가 있었는데 이날은 학생과 일반인들 약 150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백 인희씨의 지도로 이루어진 어린이들의 고전 무용은 많은 박수를 받았다. 노래 자랑, 게임 등의 순서도 흥미 있게 진행 되었다.

*** 김 종원 박사 어려운 한인들을 도움**

어려운 처지에 있는 한국인들을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돕고 있는 김 종원 박사는 이미 오래 전 부터 각 교회를 통하여 혹은 한인 단체를 통하여 여러모로 우리 한인 들에게 도움을 주어 왔다. 김 박사님은 서북 태평양 미연합 감리교회 총회 산하에 있는 교회들이 보내 온 Donation중 일부를 어려운 한인들을 돕기 위하여 봉사 센터에 의뢰 하여 왔다. 봉사 센터에서는 1월 11일 어려운 한인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구정 맞이 거북선의 밤」 개최**

와싱턴주 한인 기능사 협회에서는 2월 4일 (토) 저녁 7시에 「구정 맞이 거북선의 밤」을 갖는다고 한다. 장소는 화이트 센터에 있는 VFW Hall 이라고 하며 회원은 물론,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다고 한다. 회비는 1인당 \$7이며 부부는 \$10 이라고 한다. 저녁 식사를 제공 한다고 하며 음악과 댄스 파티가 있을 예정 이라 한다.

문의 처: 523-1135

*** 타코마 한인의 밤**

타코마 한인회에서는 1월 28일 (토) 타코마 다운타운에 있는 Pavillion Building 에서 「한인의 밤」을 갖는다고 한다. 회비는 1인당 \$5.00이며 저녁 7시 부터 시작 된다고 한다. 한인 누구나 참여 할 수 있으며, 간단한 식사가 있고, 재미 있는 순서와 댄스 파티가 있을 예정이라 한다.

*** 타코마 한인 축구단 창단**

1월 14일, 타코마 지역 한인 축구 애호가들 약 25명은 한인 축구단을 창단 하였다고 한다. 앞으로 이 축구단은 매주 토요일 아침 8시 부터 연습을 한다고 하며, 미국인 리그전에도 출전 하리라고 한다. 이날 창단식 후에는 장년 팀 대 청소년 팀의 친선 경기가 있었다고 한다. 장년 팀 코치엔 최 기엽씨, 청소년 코치엔 김 태철씨가 각각 선임 되었다고 한다.

中央日報

구독신청 광고문의

SEATTLE (206) 235-4346

TACOMA (206) 588-1434

이 종 완

중앙일보는 정성들여 만드는 가정의 신문입니다.

* 한국일보, 씨아틀에서 직송

한국일보는 금년 1월을 기해 발송 방법을 개선, 씨아틀에서 직접 우송 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종전 4일 내지 7일 걸리던 배달 시간이 대폭 단축 되는 동시에 한꺼번에 여러장이 오던 일도 없어지리라 한다. 한국일보는 매주 목요일 정기적으로 씨아틀·타코마 뉴스를 발행 하고 있는데 집안의 조그만 행사, 경조사, 소식, 독자 투고 등을 환영 한다고 한다.

연락 전화: 525-9222

교회 소식

* 씨아틀 한인 중앙 장로교회 설립

씨아틀 남서지역에 새로운 교회가 또하나 설립되었다. 한국에서 25년간 목회 하다가 씨아틀로 오신 정 연 발 목사님은 S.W 지역에 「씨아틀 한인 중앙 장로교회」를 창립 하였다고 한다

주소: 10820 12th Ave. S.W.
Seattle wa. 98146

전화: 935-6358

예배 시간: 대 예배 - 일요일 오전 11시
구역 예배 - 금요일 저녁 7시
(목사님 사택)

* 타코마 중앙교회 부흥집회 성료

타코마 중앙 교회 (정 남식 목사)에서는 1월 15일 부터 18일 까지, 한국의 국제적인 대부흥사 신 현 칸 목사를 초빙, 큰 은혜 가운데 집회를 가졌다고 한다. 첫날인 15일 저녁엔 약 500명의 청중이 모였다고 한다. 특히 "틴 타이프" 노래의 선교단(정신 여교 합창단)이 마침 미국을 순회 공연 하던중, 이번 집회에 참석, 아름다운 합창을 불려서 더욱 은혜스러웠다고 한다.

— 동 문화 소식 —

경희 대학교

경희 대학교 출신 동문들은 3월 4일 오후 6시에 동문화 발기 총회를 갖는다고 한다.

연락 처: 525-8334. 235-4346

고려 대학교

와싱턴주 고대 교우 정기 총회겸 망년회가 지난 12월 31일에 있었는데 이날은 사업 보고가 있었으며 신입 회장에는 조 요한씨, 총무에는 엄 명 보씨를 선출 하였다고 한다. 또한 금년도 사업 계획으로는 「교우 찾기 운동」을 전개 하리라 한다.

연락 처: 632-7336. 939-1171.

동국 대학교

동국 대학교 출신 동문들은 동문화 발기 총회를 준비 중인데 동대 출신 교우들의 연락을 바라고 있다고 한다.

연락 처: 767-5368. 762-2423

* 한국 예술 학원 설립

- (1) 과목: 한국학과 (역사, 지리, 풍속, 습관, 문학, 정치) 고전 무용, 서예, 그림, 동요, 창가, 한글, 한국 요리.
- (2) 대상: 어린이
- (3) 신청 마감: 2월 6일
- (4) 장소: 12528 22nd N. E.
Seattle wa. 98125.
- (5) 전화: 362-9565. (박 암 선생 댁)
- (6) 설립 취지: 민족 정신과 전통 문화를 안으로는 후세 까지 계승 발전 시키고 밖으로는 우리 전통 문화를 선양 과시 함에 있음.

— 최종 운전 에 대하여 —



에 디 운

술을 먹고 운전하다 순경한테 걸리는 것이 운전 기록에 제일 나쁜 것이다. 인슈런스 회사에서도 술먹고 운전한 것을 알면 Insurance 값이 무척 올라간다. 술이나 약을 먹고 운전한 것을 여기서는 DWI (Driving While Intoxicated) 라고 부른다. 와싱턴 주법 R CW 46-61-506을 보면 운전자가 술이나 약을 먹고 운전을 하면 1). 5일간 내지 1년간 징역에 갈수 있고. 2). 벌금이 \$50서부터 \$500까지 배야되고. 3). 운전 면허가 30일 이상 최소가 된다. 위의 (1)(2)는 판사에 따라 다르나 (3)은 mandatory 이라 누구나 술먹고 운전하였으면 30일 이상 면허장이 취소 당한다. 그리고 두 번째 술먹고 운전하여 걸리면 벌금도 무척 더 올라가고 징역 가는 경우도 많다. 또 운전 면허장이 60일 이상 취소 된다. 세 번째 걸리면 운전 면허장이 아주 취소된다. 술을 먹었으면 운전을 안 하는 것이 제일 좋다. 술을 먹고 순경한테 걸리면 순 경이 경찰국으로 데리고 가서 얼마나 먹었는지를 기계로 측정한다. 입김을 불어보라고 한다. .05% 이하이면 술이 안취한 것으로 인정하고, .05%나 .1%일때에는 술을 먹었지만 사람마다 달라 취한 사람도 있고, 안 취한 사람도 있을것이라고 법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1% 넘으면 술에 아주 취한 것으로 인정한다. .05%로 기계가 올라 갈 때는 술을 한 잔서 부터 3잔 까지 1시간 반 내에 마신 것으로 취급한다. 그래서 한 잔 서 부터 3잔까지는 마셨어도 운전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술이 안취했다고 하는 것이다. .06%부터 .1%는 술을 4잔 부터 8잔을 약3시간 안으로 마신것으로 인정하여 사람들의 체질이 달라 술이 취한 사람도 있고 안취한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이다. .1%가 넘는 것은 100% PProof 술을 10 ounces 을 넘어 먹은 것으로 인정하고 이럴 때는 말을 잘 못하고 걸음을 잘 못 걷는 것으로 인정한다. 순경들이 처음에 자동차를 세워 놓고 운전수 한테서 술법세가 나고 말을 잘 못하면 보통 알파베트를 A서 부터 Z까지 불러 보라고 한다.

그리고 눈 감고 코를 만져보라고 한다. 또 하얀 줄을 따라서 똑바로 걸어보라고 한다. 그런데 순경한테 처음 말 할 때가 제일 중요하다. 순경들도 사람이라 딱딱하게 나오면 경찰서로 끌고 올 때가 많다. 만약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을 때는 점이나 사랑 같은것을 먹어 술 법세를 없애는 것이 좋다. 그리고 순경한테 걸렸을 때는 떨려도 말을 똑똑히 하여야 한다. 영어를 못하면 못한다고 하여야 한다. 만일 경찰서 까지 갔으면 거기서 변호사를 원한다고 요청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입 김을 불고 나서도 술 먹고 운전하였으면 꼭 변호사 한테 상담 하는 것이 좋다. 술 먹고 운전한 것을 다른 죄로 바꿀 수가 있다. 술 먹고 운전한 것이 제일 큰 운전 죄에 하나 이지만 이것을 만 소 범죄로 하여 달 라고 할 수가 있다. 이 DWI Case 는 보통 이기기가 힘든 것이다. 기계에다 입김을 불고 나면 기계는 거짓말을 안하너 우기기가 힘든 것이다. 보통 변호사들의 Defense는 운전을 안했다, 기계가 잘못이다, 경찰이 운전수 한테 그 사람의 기본 권리를 안가르쳐 주었다, 라는 경우가 많으나 보통 100이면 98을 검사가 이긴다. 내가 제일 처음 변호사가 되었을 때 DWI 케이스를 맡았다. MR. X라는 한국분이 술을 먹고 운 전하다 주 경찰에 걸렸는데 입김을 부는 것을 거절 하였다. 거절 하면 술이 취한것을 인정하고 운전 면허증이 자동적으로 취소 당한다. 재판을 할 때 순경 한테 한국말로 물어 보았다. 물론 못알아 듣고 있을때 영어로 한국말로 안 물어 보았나고 물어 봤더니 그렇다고 말 하였다. 그래 이 사람은 영어를 못해 입김 부는 조사를 안했다고 우겨 이기적이 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 그날이 운이 좋은 날이라고 생각 된다. 또 판사가 새 변호사라 보아준 기분도 있다. 다시 말 하고 싶은 것은 술을 먹으면 절대 운전 안하는 것이 좋다.

(필자: 타코마 시 변호사. 경찰국 담당)

**안전한 운전으로
생명을 보호 합시다**



코리아

신장개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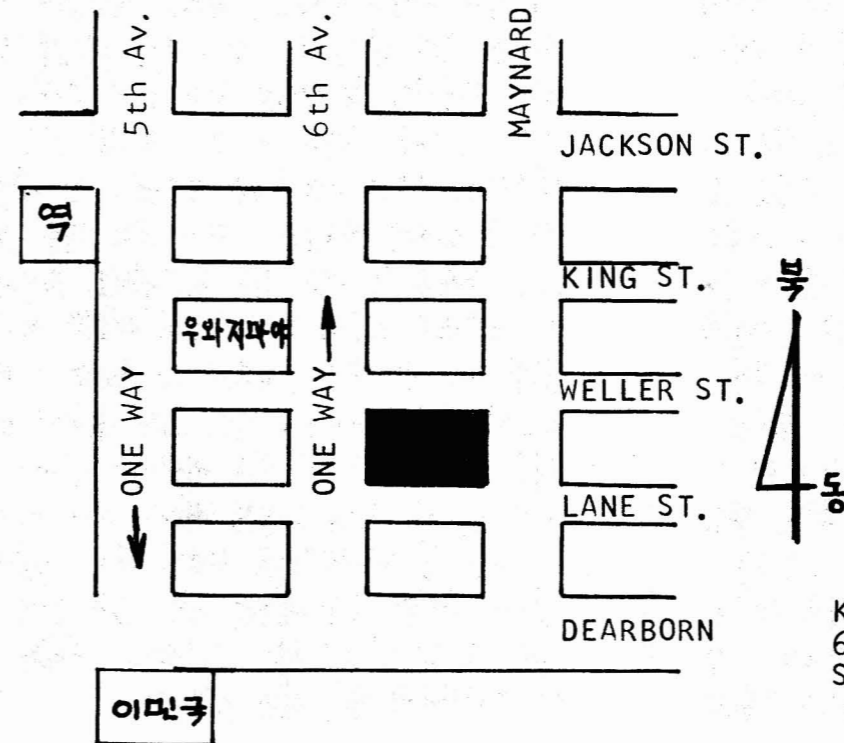
센터



- 생선 및 육류
- 간장 및 참기름류
- 라면 및 국수류
- 채소류 및 과일류
- 미국식품 및 생활필수품
- 한국서 직수입 품목
- 일반찬류
- 곡 류

교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인의 구미에 맞는 다양한 식품을
 구비하고 일반 슈퍼마켓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일차 왕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리아 센터 배상



KOREA CENTER
 616 6th Ave.
 SEATTLE, WASH
 ☎ 682-9092

·지상 설교·

“세상을 위한 교회”



—기독교의 종교화와 세속화에 항거하면서—

김 종원 박사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늘로 올라 가신 위대한 대제관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계십니다. 우리의 대제관은 연약한 우리를 몰라 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와 한가지로 모든 일에 유혹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으시지는 않았읍니다. (4장 14절-15절) 곧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높은데 계시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세계를 지배하시는 분이요 동시에 이 낮고 천한 세상에 있는 우리 인간과 함께 고통을 당하시는 분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연약한 우리를 몰라 주시는 분이 아니고”란 말씀이 있는데 이 말은 “우리와 함께 참는다” “우리와 함께 연단 한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을 괴롭히는 죽음이나 죄에서 그리고 거기서 신음하는 인간들과 함께 예수님은 연단 하시며 고통 하시다가 하나님의 아들만이 가지는 그 엄청난 힘으로 오히려 죄와 죽음에 승리하여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곧 그의 낮음이 그의 높음이며 그의 가난함이 그의 부유함이요. 또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고통을 짊어지셨다는 것이 바로 그의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의 영광도 또한 그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영광도 이 세상의 고통을 짊어질 때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는 신앙에 대해서 오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곧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가까와 진다고 하는 것이 마치 우리가 사는 이 속된 세상에서 차차 떠러져 나가는 것 처럼 생각 합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것은 속세라고 하는 큰 바다 맨 한 가운데 떠 있는 “거룩한 작은 섬” 처럼 생각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 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상을 “종교” 라는 이름으로 불러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란 그러한 의미에서는 종교가 아닙니다. 저는 일찍이 독일의 신학자 디이트리히 본헤퍼

가 다음과 같이 말 한 것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인이란 종교적 인간이 아니다. 나사렛 예수가 그렇듯이 그리스도 인은 순수한 인간이다.” 그는 또한 말하기를 “교회는 세상을 위해, 곧 이웃을 위해 존재 할 때 비로써 그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오늘날 세상에 있는 교회에 많은 영향을 미쳤읍니다. 우리는 교회와 세계, 교회와 사회와의 연대를 그에게서 새롭게 배웠읍니다. 교회는 결코 교회 그 자신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만 존재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웃과 남을 위해서 그 일생을 바치신 예수님을 배워야 하며 또한 그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을 위해 존재 한다는 것을 마치 교회가 세상에 동화 되어 버리는 것처럼 생각 해서는 안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 세상을 본 받지 말라”고 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나 “세속에 물들지 말라”고 한 야고보서 1장 27 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잘 설명해 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서가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와 동시에 세상을 본받지 말라, 세상에 물들지 말라, 세속과 타협하지 말라고 하였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특히 히브리서 4장 15절 마지막 부분에 나타난 예수님의 참 모습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와 꼭 같이 죄지를 모든 유혹을 받으면서도 “죄를 지으시지는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한 점에서 예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는 우리와 꼭 같은 길을 걸으면서도 유혹에 넘어지지 않으시고 오히려 죄와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승리 하신 것입니다. 교회란 이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 인은 그의 승리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속된 세상에서 산다는 것은 세속에 물들어 그대로 파묻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말씀 한 것처럼 “비록 우리가 속된 세상에서 살고 있기는 하지만 속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와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의를 항상 추구하면서 생활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 자신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존재 한다는 것을 잊어서도 안되지만 동시에 교회가 이 세상의 일부가 아니라 세상과는 다른 차원에서 있으면서도 이 세상 맨 한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도 안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맛 잃은 소금으로서 버림 받는 일 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종교화에 대항하며 싸우는 동시에 교회의 세속화에 대해서도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언제나 종교화와 세속화라고 하는 두 위험한 골짜기 사이에 끼여 있는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가시 면류관의 길이고, 영광의 길입니다. 지금도 종교화나 세속화라는 큰 유혹이 입을 벌리고 우리들을 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주님이 가신 그 좁은 길을 매일 힘차게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 하실 것 입니다.

(필자: 케니대일 미 감리교회 목사)

이 젊은이들을.....

멀지 않은 미래의 주인공이 될 젊은이들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미국 속에서 한국인의 열을 지키고 키워 나갈 희망에 부푼 가슴들은 지금 어떻게 성장하며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우리 성인들은 이들을 위하여 무엇을 해 주었는가? 우리는 이 젊은이들을 얼마나 보살펴 주면서 살고 있는가? 발랄한 젊음을 학업에 몰두하며 미래를 설계하는 지성들이 여기에 있다. 젊은이들이 그들의 가슴 속에 올바른 꿈을 키우면서 학업에 전념 할수 있도록 격려하고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야 할 것이다. 특히 가족을 떠나와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은 감사절, 크리스마스, 연말연시, 주말이 되면 쓸쓸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않는가? 그들은 어디에 갈 곳이 있는가? 기숙사 방에서 고향의 부모 형제를 그리워 하며 쓸쓸한 주말과 휴가를 보내고 있을 젊은이들을 우리는 보고만 있을 것인가? 주말이나 명절 때 이와 같은 젊은이들을 집으로 초대하여 따뜻한 담화를 나눌 가정은 없는지? 현재 University of Washington만 해도 상당수의 한국 유학생이 와서 공부하고 있다고 한다.

* 학생들을 가정에 초대하여 위로하고 담화를 나누고 싶은 가정에서는 한인회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면 희망 하시는 성격에 따라서 그러한 학생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락 전화: 624-7604, 7607.

헨리 장 여행사

9002 12th Ave. N.E.
Seattle, WA 98115
(206) 523-7057

- * 단체 모국 방문
- * 국제 국내 비행기 표
- * 민원 서류 (교포 여권, 여권 연장) 배부
- * 각종 서류 작성, 수속 대행

Henry Chang Travel Service

우으면서 차를 찾는 - KIM'S AUTO REPAIR

자동차 고장은 무엇이든지
맡길 수 있습니다.

주소: Lake City Way and 15th Ave. N.E.
전화: 524-9686 (잡) 622-0204

와싱턴주 경희대학교 동문회 발기 총회

- o 날짜: 3월 4일 (토) 오후 6시
- o 장소: 경화 반점 (King Hwa Restaurant)
605 S.W. 152th Burien
- o 회비: \$5.00
- o 연락 장소: 백 응기 (525-8334)
이종완 (235-4346) 발기인 일동.

우리는 싸워야겠다

김 청 작

1975년 1월에 미국 이민 생활이 시작 하면서 지금에 까지 근 3년간 너무나 많은 곤경들을 겪은것 같다. 물론 나 개인 뿐이 아니라 어느 입장에서나 다 똑 같은 일들이고, 더욱이 앞서 온 선자들은 몇 배의 수난들이 있었을 것도 같다. 처음 시간당 3불짜리 직장에서 통하지 않는 언어 전달에 고용주의 눈치를 보기가 일수고, 하루가 지나면 배일은 그만 두라고 하지 않을까? 항상 불안에서 견디며 그야말로 병어리 병가슴 많이 생활 속이었다. 눈물, 한숨, 긴장, 갖가지의 병태, 심지어는 인종의 차별도 받아가며 지냈지만 나 자신의 미족한 탓으로 한 번도 분노해 본 일은 없었다. 그런데 이번은 정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아닐 수 없다. 100년이 훨씬 넘는 목조 건물인 Santelmo apt.는 Stewart St. Seattle Downtown에 자리잡은 다 층의 건물이 하나 있다. 이 속에는 총 50호중 약 30호에 한국인이 살고 있는 그야말로 조그마한 한국촌 이라고도 불러온다. 듣기에는 우리 한국인들이 이곳에 오기전에는 폐기처분 할 단계에 있었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한국인이 많이 모였나를 잠깐 열거 해보면 첫째, 처음 이민자들이 Downtown에 자리잡아 교통수단이 용이하고, 둘째, 방값이 싼 편이었다(현재는 터무니 없이 비쌌) 셋째, 한국인이 많이 모여 살아 이민 생활에서 서로 외로움을 나눌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부터였다. 각 방마다 사면이 다 있지만 우선 몇 가구를 말해 보면 계약 당시의 100불을 지난 7월에 120불로 인상 한 다음 8월에 와서는 식구가 많으니까 한 사람당 10불씩을 더 추가해서 40불을 더 인상시켜 160불을 요구 한 다음, 즉시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20불을 더 추가 시켰다. 또 어떤 방에는 휴즈를 교환 했다고 \$1.50을 요구하여 받아 갔고 또 주차장 비 5불을 받은 다음 다른 방에다 같은

장소의 값을 받고 팔았다. 세탁기에 세탁중 휴즈가 나갔는데도 약 4시간 동안 불쾌한 태도를 보인 후 고쳐 주었다. 한국인이 하는 일에는 일거 일동에 불만을 주는 태도일 뿐이다. 병장고가 좋지않아 고쳐주기를 청했으나 몇 달이 지나도 반응이 없자 개인 병장고를 사다 놓고 사용하는 방도 있다. 그 다음에는 미국인과 일본인에게는 방세를 인상치 않고 한국인에게만 각 방마다 5, 10, 20불씩 주인 마음 바뀌는대로 인상 시켰다. 이것도 비공개적으로 각 방마다 조그마한 종이 쪽지에 12월 부터 요구 하였다. 이것은 분명히 차별대우다. 배 개인이 미국인에게 당한 차별대우는 대수롭게 할 수가 없었지만 전체적인 한국인의 대한 모욕적인 차별대우는 더 참을 수 없이 싸워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겨야 한다. 한가지 방법은 우리는 모두다 이 아파트에서 하루속히 이사를 하고 이런 대우를 받는 장소에 다시는 한국인이 살지 않아야 하며 입주를 시도하는 자도 한 사람의 한국인은 없어야겠다. 이민을 오기 전 서울에서 소양교육을 받을 때 감사인 모 교수가 자기는 미국에서 18년간 살아 오면서 한 번도 차별대우를 받아 본 일이 없었다고 한 말이 기억에 생생하다. 이유는 본인의 행동이 신사적일 때는 인종의 차별이 하나도 없다고 했다. 지금 3년간 미국 생활 속에서 그 말을 무척이나 반박을 하고 싶다. 이곳에는 많은 한국인 박사 대학 교수, 경제인들 국가 대표자들도 많지만 나는 그 자들도 근본적으로는 모두가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고 본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의 위치에서 미국을 평가 해서는 안될것 같다. 좀 더 큰 무치로 한국인이라 전체적인 입장에서 우리는 항상 평하고 미국인을 대할 수 있는 태도를 가져야겠다. 왜 우리는 미국에 왔는가? 현재 각 개인이 어떤 위치에 처해 있는, 어떤 목적으로 왔든, 한 마디로 말해서 우리 조국이 이곳 보다 부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 살아 보기 위해 점든 땅을 두고 건너 온 것이다. 학문을 연구하는 학생이나 박사나 경제인들이나 또한 이렇게 먼 말단의 노동 인이나 모두가 한국에서 보다 유리한 입장에 처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후손을 위해서라도

무쳐야 한다. 옛날 이 대통령의 선거 유세가 아니고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조그마한 일 부터 무쳐야 한다. 우리는 될수 있는 한 미국인의 범망한 바라고 보호하기를 기다려서는 안 되겠다. 우리 한국인의 인식을 매섭게 맛을 보여 줘야 하고 매섭게 대결 할 줄 알아야 하겠다. 너무 선 하기만 하고 착해서는 안 되겠다. 비신사적일 수는 없어도 신사적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누구든지 우리 한인들에게 의식적으로 멸시 하면 우리는 꼭 보복을 할 줄 알아야겠다. 우리는 이제 우리끼리의 정력 다툼은 그만 하고 이 큰 대륙을 향해 항상 싸워 이겨야겠다.

"아리랑의 밤" 경품 기증자 명단

- 중앙 식품라면 5박스
- 오대양 식품.....레코드 판 5장
- 101 Auto Repair 허 남일씨.....쌀 150 파운드
- 신 호범씨.....쌀 100 파운드
- 태화각식권 40불 상당
- 한국집떡 9파운드
- 해리장 여행사.....라면 4박스
- 김 현중 부동산.....쌀 100 파운드
- Kim's Auto Repair 김 청작씨.....현금 55불
- A.K.motors 유 정길씨.....드라이버 1세트
- 안 병용 부동산라면 5박스
- Grand Food 백 웅기씨.....콜라 7up 24 병
- 코리아 센터.....쌀 200 파운드
- 우와지마야찬 합 1세트
- 김 철준 생명 보험(New York Life).....쌀 100파운드
- 김의 여행사 김 창성씨.....쌀 100파운드.
- 오 준걸 이사장.....쌀 50 파운드.
- 이제다 상점라면 2박스.
- 중앙일보 이 종완씨.....향수 1세트
- 김 길광 이사50불.
- North Coast Importing Co.라면 2박스
- Matsufu House of Rice.....라면 4박스

감사 합니다. Thank you.

1978년도 한인회 임원·이사 명단

- (임원)
- 회장: 김 형진
 - 부회장: 박 재인, 정 평화
 - 총무: 이 형상
 - 섭외 부장: 김 철준
 - 체육 부장: 이 신남
 - 봉사 부장: Thompson
 - 교육 부장: 윤 부원
 - 청년 부장: 윤 학덕
 - 재무 부장: 최 금순
 - 편집 부장: 이 수호

- (이사)
- 이사 장: 오 준걸
 - 부이사 장: 한 만섭
 - 이사: 김 길광, 김 재호, 김 창성, 황 수철.

한국식품 중 앙 식품

- 선물 용품
- 생필품일체
- 친절하 서비스·저렴한 가격·한국인의 정. 우리는 이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 주소: 9641-15th Ave. S.W. Sea.wa. 화이트센터 중심가에 있음.
- 전화: 762-5620

출산 축하 합니다

- 구 범희씨 득남 (12월)
- 윤 부원씨 득녀 (")
- 김 근명씨 득남 (")
- 이 규명씨 득녀 (")
- 윤 용화씨 득남 (1월)

-수필-



심금선

낙엽 길 따라 한가히 견고 싶어진다. 수북히 쌓인 낙엽 길을 밟고, 또 가노라면 우거진 낙엽 길 속에서 몇달전 떠나신 어머니의 가신 길이 보일 것만 같다. 반 녹색인가 하면 황갈색으로 적갈색으로 어느듯 변해 가는 낙엽 속에서 가을은 짙어 간다. 문 사람들의 마음을 우물케 만든다는 계절이라 했지만 금년의 낙엽은 나를 더욱 어둡고 무겁게 하여 준다. 세 아이를 키우는 엄마 답지않게..... 하지만 어머니의 훈김을 그리는 마음은 똑 같으니까 보다. 일손이 한가 해지면 우연히 바다 보이는 창밖에서 향수에 젖는 나를 책망도 하고 반성도 해 본다. 하늘을 높이 올려 쳐다 보시며 구름의 흐름 속에서 미국의 하늘을 찾으셨다면 말씀, 시집 보배는 날과 미국 보낸 딸을, 세상 이별 하시는 순간 까지 몹시도 그리시던 어머니의 초채하신 모습을 그려 보며 죄책감의 몸부림도 시원치가 않다. 지금쯤은 낙엽이 짙을 산소여라도 뛰어 올라가 없어져 실컷도록 여기하며 용서라도 빌고픈 진다. 난월이라도 좋았고 덕두리라도 어떤 글월이라도 자주 띄워 드렸었다면..... 하면서 영영 가벼워 질수 없는 한 구석을 지내며 살아 가야 한다. 하얀 백지를 가득 채웠어도 띄울 곳이 없는 글월.....

이제야 나는 멍청스런 참회 속에 휘말려 버린다. 어떤 가을이었는데 낙엽진 은행 나무 앞을 뚫아 두터운 책 속에 끼워 두셨다가 방학 숙제의 소재 찾기에 허덕이는 나에게 아무 말씀없이 꺼내 주시던 노-란 은행 나무 잎이 올 가을엔 새삼 눈에 선해 진다. 그 때 어머니의 눈길에 감사의 시선이나 드렸었는지... 하며 지금이야 흠뻑 후회 하여 본다. 낙엽이 말라 가랑잎이 되어짐이 나에게 또 하나의 어두움을 갖게 한다. 겨울을 재촉하는 동진달이면 어머니의 생신달이 기에..... 싸늘한 초겨울의 추함과 함께 더욱더 식어 가는 어머니의 육신에 훈김이 멀어 감을 감촉하며

한없이 울어도 보고싶어지는 마음. 하지만 나는 영원한 영혼의 아름다운 세계를 확신하기에 신비로운 영혼의 세계에서 마음껏 평안을 누리실 어머니의 새생활을 동경 하면서..... 끊임 없이 저를 지켜보고 계실 어머니의 영혼을 간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함을 다짐 해 본다.

詩

내 님의 미소

배동학

그리움이 잔 물결 치는 호숫가에서도
외로움이 밀려 오는 창가에서도
동심에 부딪는 가슴 속에서도
그 때 그 날 부터

단 하나
나의 가냘픈 소망은
언제나 정겨운 네 미소란다

그러나
뜨겁게 불타던 너의 눈망을 속에서도
미소는 여위어만 가고
추억의 망막 위엔 한숨만 짙어 오니

서-러는
네 환상일광은 자취 두자고
나도 이젠
쓴 미소를 지어야만 하나보다

또,
난,
차라리 외롭다는 죄사가 되어
떠나 먼
아득한 곳 그리움을 향해
떨어졌던 창 너머로
촉점 잃어가는 시선을 돌린다.

김철준

NEW YORK LIFE

보험

謹賀新年



SEATTLE 사무실 : 363-3704

집 : 232-9207

TACOMA 사무실 : 588-0333

CHUL J. KIM
FIELD UNDERWRITER

NEW YORK LIFE INSURANCE COMPANY
4121 SEATTLE-FIRST NAT'L BANK BLDG.
SEATTLE, WA 98154
363-3704

We guarantee tomorrow today.



WR 워싱턴 부동산회사

전화: 622-4120 WASHINGTON REALTY, INC.

510 TERMINAL SALES BUILDING • 1932 1ST AVENUE
SEATTLE, WASHINGTON 98101

한 병 용

(PHILIP B. AHN, BROKER)

Office 622-4120

씨 아틀 838-2010

마코 마 927-7778

박 영 민

(Mike Y. Park)

Off: 622-4120/Res: 838-4339

남서지역

북부지역

상업·투자

타코마



부동산. 투자. 상담. 재산관리. 보험. 무료상담.

타고화영

한인 회보에 실을 원고는 날짜에 제한 없이 접수 하고 있습니다. 생활 정보, 문예 작품, 논설, 기타 아무 내용이라도 좋습니다. 보내 주신 원고는 성의껏 실어 드리겠습니다. -편집실-
보낼 주소: Seattle-wa. State Korean Association
P.O. Box 24992, Seattle WA. 98124

== 엮고 나서 ==

어느 날 나는 지구를 떠나 태양과 지구 사이에 있었다. 지상의 필름은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다. 오늘도 진리의 웅변은 도처에서 들려 오고, 명은 가슴들은 저마다 작은 인생의 배를 열심히 노 저어 가고 —

이제 막 태어나는 아기의 울음 소리, 어떤 이는 조용히 세상을 떠나고 있었다. 슬픈 시를 읽으며 창가에 앉아 우는 여인, 숲 속에선 아름다운 함창이 들려 오고 있었다. 언젠가 너 곁에 있었던 음성이 나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있었다.

이만한 거리에서 지구를 보노라면, 나는 속히 지구로 돌아가서 누군가를 간절히 사랑하며 살아야 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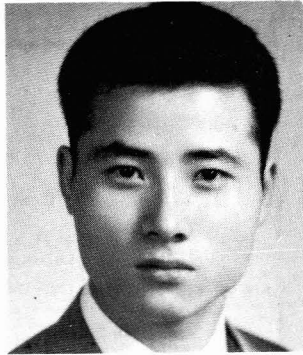
오늘도 나는 지구의 번두리를 서성이면서 공짜로 구경하는 엑스트라 인생인가?
백운대 바위는, 당신을 향한 말없는 사랑을 키우고 있는가? —수호—

이 규 영 계 리 사

Income Tax 라면

성심성의껏 봉사해 드리기로 약속하는
저를 불러 주십시오!

- 중소기업 장부 정리
- 일반 인컴택스
- 세무상담
- 퇴직 연금 상담
- 기밀 절대 보장



SEATTLE OFFICE:

1928 - 2nd Ave. Seattle, WA 98101
(206) 623-9290 or 322-3782 (24Hrs.)

TACOMA OFFICE:

6415 Steilacoom Blvd. S. W.
Tacoma, Wash. 98499
(206) 588-0333
Wed. Sat.

한인회비 납부자 명단

(1월 13일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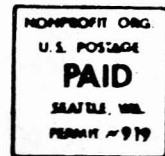
1. 이 문세 \$ 10.
2. 송 문익 \$ 10.
3. OK Hui Souls \$ 10.
 소계 \$30. 누계 \$30.

기부금 납부자 명단

1. 정 낙영 \$ 10.
2. 김 스펜사 \$250.
3. 전 계상 \$ 50.
4. 한 만섭 \$ 50.
5. 씨아를 총 영사관 \$200.
6. 외환 은행 \$100.
7. American Con. Co. \$100.
8. Lea. Armstrong \$ 20.
9. 김 재호 \$100.
10. 신 호범 \$ 50.
11. Dan T. Lee \$100.
12. Pearl, Nam Chu \$ 10.
13. "아리랑의 밤" 기부금 Box... \$ 63.⁶⁵
 소계 \$1,103.⁶⁵
 누계 \$1,103.⁶⁵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P.O. BOX 24992 / SEATTLE, WASHINGTON 98124



0257 000154005
HAHN MAN SDP
12904 SE 45TH LANE
WA BELLEVUE

98006